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리콜 조치

전기 찜질기 6개, 완구 6개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조사과(02-509-7251)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현)은 휴대용 사다리, 전기 찜질기, 어린이 완구 등 생활제품 2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 ◎ 조사결과, 전기찜질기(6개), 완구(6개), 휴대용 사다리(1개), 천공기(1개),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 (리콜조치율 : 5.5%)함
- 리콜조치된 1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전기 찜질기 6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변경·누락(온도조절기 등) 되었고,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음
 - ◎ 완구 6개 제품은 어린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77배 상회하였고, 1개 제품은 조혈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10.8배 초과하였음
 - ◎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은 벌어짐 방지기구가 없어, 사람의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사다리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였음
 - ◎ 천공기 1개 제품은 인증당시의 퓨즈홀더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전부가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성이 큼
-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한 제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
 - ◎ 특히, 찜질기 중 찜질기의 온도가 기준보다 높은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권고, 및 판매정지(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림
 -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 찜질기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전기 찜질기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를 통한 불량률을 낮출 계획임
-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여 주어야 함
 - ◎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함
-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 ◎ 이와 관련하여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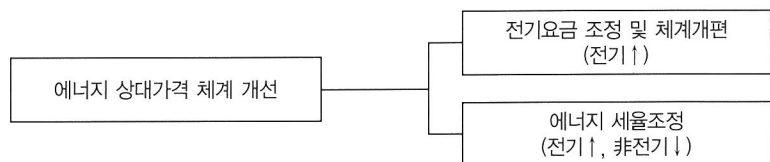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02-2110-4662)

- 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
-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 방향〉



- 우리나라 전기 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여 급증하고 있음

* 전기사용량(전년대비 증가율): ('08) 4.5% ('09) 2.4% ('10) 10.1% ('11) 4.8% ('12) 2.5%

-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전기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05~'12년간 가격증가율: 전기 33% (Vs) 등유 60%, 도시가스 75%

** '05~'12년간 소비증가율: 전기 40% (Vs) 등유△44%, 도시가스 7%

※ 타 에너지원(유류, 가스)의 전기 대체소비 사례

(예시1) A기업 빌딩은 중앙집중냉방 건물로 기존에 가스냉방을 활용하였으나, 최근 각 사무실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 냉방 방식으로 교체

(예시2) B농가에서는 기존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난방과 건조시설을 전기보일러와 전기 건조시설로 전환

(예시3) C공장에서는 유류를 사용하는 자기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 받음

- 늘어나는 전기 소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능력도 확대하되, 입지·환경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전력 수급 관리가 시급함
- ◎ 특히, 기간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투자 유인이 부족*했던 전력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 부문의 기술 투자를 유인하여, 에너지 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온수를 동시에 생산하는 보일러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사업성이 저조

※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소비가 감소세로 전환
 · 전력소비량 증가율 비교('08년 대비 '12년): (韓)19.3%, (日)▲4.6%, (美)▲1.9%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여 11월 21일(목)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
- ◎ 금년 중 조정요인은 8%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하였음
 - * 한전은 임직원 임금 및 성과급 반납, 불요불급한 비용절감, 자산(자회사 지분, 알짜 부동산) 매각 등 '사상 가장 강력한 부채 대책'(11.11 발표) 이행을 추진할 계획
- ◎ 또한,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 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금번 조정의 주요 특징임

〈용도별 조정률〉

-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조정함

구분	평균	주택	일반	교육	산업	가로	농사	심야
조정률*(%)	5.4%	2.7%	5.8%	0%	6.4%	5.4%	3.0%	5.4%

- 산업용·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하여,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증을 완화
-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으로 조정
-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특히,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 인하)
- 농사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 가로등·심야는 평균 수준으로 조정

* 향후 1년간 용도별 평균 부담 증가율(예상치)로 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하여 산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및 전기사용계약기준 개선〉

-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계절별·시간대별 구분을 개편(일반용·산업용·교육용)
 - ① 하계 확대(7~8월 → 6~8월), ② 하계, 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 확대(5시간 → 6시간)
- ◎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을) 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
- ◎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일반용·산업용(을))



- ① 동·하계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하여 의무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 (5천kW 미만 → 고압A)
- ② 피크시간대(14~17시)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대비 5배)을 부과하여, 피크 절감 투자를 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 신설 (고압B·C 대상)
- ◎ 24시간 설비를 가동하여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 (일반용·산업용(을) 고압A 선택Ⅲ)
- ◎ 한편,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12월 초부터 '세부적인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함
- ◎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 → 660W),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kW 이하) 및 분할납부(20kW 초과 등) 등을 시행하는 한편,
- ◎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할인 적용을 확대(일반용 적용 후 20%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특례(일반용 저압 5.9% 할인)를 연장키로 하였음

〈금번 전기요금 조정효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 원가는 0.074%P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 ◎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는 평균 1,31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일반용 산업용 등의 경우에는 전기사용 규모, 사용패턴 등에 따라 부담이 상이

아름다운 명언

- 마이클 J 겔브 -

Champions know that success is inevitabl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failure, only feedback.
They know that the best way
to forecast the future is to create it.

챔피언은 성공이 필연적인 것이고
실패가 아닌 피드백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길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임을 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13년 2월 이후 전력판매량 증가세 지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02-2110-4871)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에너지복지 확대 시행을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임

-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을 '13년도 798억원에서 '14년안 1,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액 반영하였음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6천가구 확대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지원규모 : '13년 411억원 → '14년안 596억원
 - 지원대상 : '13년 3.3만 가구 → '14년안 3.9만 가구
 -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지원('13년 246억원 → '14년안 356억원)
 - 저소득층 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5.6만 가구, 내년 79.4만 가구 등 총 85만여 가구 전체의 백열등 교체 비용 반영
 -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금년 550개 시설에서 내년 1,770개 시설로 확대·지원할 계획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천여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41억원의 연탄쿠폰을 지원
 - * 1가구당 169천원(연간 약340장 상당)분 지원
 -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음
 - ◎ 도시가스 미공급 사회복지시설(360개 시설) 및 농어촌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13년 43억원 → '14년안 56억원)
 - 특히, 30가구 이상 마을로 LPG저장탱크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신규 추진(9개도별 1개 마을)
 -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13년 620억원 → '14년안 690억원)
 - ◎ 경제성 논리로는 전기가 공급되기 어려운 도서나 벽지 지역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13년 1,711억원 → '14년안 1,756억원)
 - 이와 더불어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도입·지원할 예정임
 - ◎ 이를 위해 재정소요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15년부터 지원할 계획

한전, 어려운 전력용어 알기 쉽게 변경

일본식 한자, 영어 표현 등 435개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변경 및 적용

문의 | 한국전력 기술기획처(02-3456-3713)

-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전력용어 435개를 알기 쉬운 말로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9일(월) 밝혔다.
- 이번 「알기 쉬운 전력용어」정립 작업은 전력용어가 기존의 ‘어려운 전문용어’ 개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가 되도록, 한전에서 학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용어를 검토하고 국어정책기관인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한전은 금번 용어정립 결과가 직원과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내 기준서 및 절차서 등의 개정작업을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핸드북으로도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한전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435개 변경 용어 중 발췌 내용

I. 송변전분야 용어변경

순번	현행	변경	순번	현행	변경
1	경간(徑間)	지지물간 거리	18	가선(架線)	전선 설치
2	지상고(地上高)	전선 높이	19	연선(延線)	전선 퍼기
3	재폐로	(자동)재투입	20	긴선(緊線)	전선 당기기
4	쇄정	잠금	21	Relay,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
5	응동	동작	22	써모비전(Thermo Vision)	열화상 측정기
6	이면 배선	내부 배선	23	방압변(Pressure Relief Device)	과압 방출장치
7	뇌씨지	낙뢰충격전압	24	MCCB, Auto Breaker	배선용 차단기
8	(발전기) 감발	(발전기)출력감소	25	병가	병행 가선
9	(발전기) 증발	(발전기)출력증가	26	조상설비	무효전력 보상장치
10	조류(潮流)	전력 흐름	27	CT, 변류기	전류변성기
11	HVDC 케이블	고압직류송전케이블	28	MOF	전압전류변성기
12	회선공장(回線冗長)	회선길이	29	PT	전압변성기
13	반도(反跳)	되튐	30	전선 실장	전선 실제길이
14	철탑 도괴	철탑 넘어짐	31	수트리	수분침투 균열
15	батери(Battery), 축전지	축전지	32	어스, Ground	접지
16	블랙아웃(Blackout)	대정전	33	뇌격	낙뢰
17	제로에너지하우스(zero-energy house)	에너지 자급주택	34	로드 shedding(Load Shedding)	일부 부하차단

II. 배전분야 용어 변경

순번	현행	변경	순번	현행	변경
1	원방제어(遠方制御)	원격제어(遠隔制御)	17	휴즈	퓨즈
2	인입선(引入線)	고객공급선(顧客供給線)	18	호광시간(弧光時間)	아크 발생시간
3	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이웃고객 공급선	19	철탑정부(鐵塔頂部)	철탑꼭대기
4	에자 두부	에자 머리	20	타이(Tie)	연계
5	공장(亘長)	선로 길이	21	프레샤	시험용 단자
6	말구(末口), 말구경(末口徑)	윗동, 윗동지름	22	변대주	변압기주
7	지선	지지선	23	단가업체	협력회사
8	승주(昇柱)하다	(전주에) 오르다	24	오계량	계량 오류
9	제퍼로	재투입	25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선로구분 자동개폐기
10	E-type 계기	E형 전력량계	26	리클로저, 자동제퍼로차단기	자동재투입 차단기
11	DM 수동복귀버튼	최대수요전력 초기화 버튼	27	직결(直結)	직접 연결
12	건전구간(健全區間)	정상구간(正常區間)	28	내장(耐長)	장력 견딤
13	잠바선	점퍼선	29	콘넥타	연결기
14	가공지선(架空地線)	공중 낙뢰유도선	30	랙크(Rack)	랙
15	구배(勾配)	기울기	31	입상주	케이블 오름전주
16	이도(弛度)	늘어짐(정도)	32	암타이	완철 지지대

III. 신기술분야 용어변경

순번	현행	변경	순번	현행	변경
1	Smart Meter, 스마트 미터	스마트 전력량계	15	그린 프라이스(Green Price)	녹색가격제도
2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16	블레이드(Blade)	날개
3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	17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그리드 평형점
4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18	부하 평준화, Load leveling	부하 평준화
5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축전지 관리장치	19	침투부하 저감, Peak Shaving	피크부하 저감
6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20	총체적 품질경영, 전사적 품질경영, TQM	전사적 품질경영
7	CPP(Critical Peak Pricing), 피크요금제	피크요금제	21	연돌	굴뚝
8	RTP(Real Time Pricing)	실시간 요금제	22	연도	연소가스 통로
9	EV(Electric Vehicle)	전기차	23	Off-taker	생산품구매자
10	Smart Thermostat	스마트 온도조절기	24	풍도	공기 통로
11	우드펠릿	압착나무연료	26	제매장치	그늘음 제거장치
12	비회(Fly Ash)	날림재	26	런백(Run Back)	출력 감소
13	저회(Bottom Ash)	바닥재	27	BOP(Balance Of Plant)	보조설비
14	개거(開渠)	개방 수로	28	가바나프리(Governor free)	조속기 개방

IV. ICT분야 용어변경

순번	현행	변경	순번	현행	변경
1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6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2	AMR(Automatic Meter Reading)	원격 검침	7	In-house 개발	자체 개발
3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	8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공급자관계관리(SRM)
4	HDTV	고화질 텔레비전	9	Batch	일괄
5	DR(Disaster Recovery)	재해 복구	10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화 전략계획

V. 전력수급분야 용어변경

순번	현행	변경	순번	현행	변경
1	소내 소비전력	발전소내 소비전력	4	축열	열저장
2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직접구매계약	5	축냉	냉기저장
3	절전규제	전력사용규제	6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	민간발전기 활용